

#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고도 알마티

소 대 화\* · Irina Nam\*\* · Natalya Korobova\*\*

## Almaty of Old City on Central-asian Silk-road

Soh, Dea-Wha\* · Irina Nam\*\* · Natalya Korobova\*\*

### 1. 카자흐스탄 개요

카자흐란 이름은 '유랑자' 또는 '독립인'이라는 말로 이들 민족은 13세기 징키스칸의 후예로 전통적인 유목민족이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72만 4900km<sup>2</sup>로 세계에서 9위이며, 남한의 27배에 달한다. 인구는 2001년 1670만 3100명으로 서울시의 인구와 비슷하다. 정식명칭은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이다.

1991년 구소련의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CIS)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는 공화제의 형태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90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 후 우리나라와 북한에 각각 92년 1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1998년에는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옮겼다. 북쪽은 러시아연방에 접해 있고, 동쪽으로 중국과 몽골에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접하고, 서쪽으로 카스피 해(海)에 닿아있다.

역사적으로 카자흐는 나라 없는 한인들의 한 많은 수난의 역사가 쓰여진 중앙아시아의 나라이다. 1937년 스탈린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강제 이주에 따라 수십만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었다. 이들은 일본인이 한인을 이용해

간첩으로 쓴다는 우려와 한인수의 증가에 따른 자치요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농업(벼농사)기술을 중앙아시아의 농업 개혁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 소수 민족 분산 지배 정책 등의 정치적 이유로 화물차와 가축 운반철도로 이송되었다.

추운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한 달여에 걸친 이동 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다수가 사망하였으며, 한인들이 당도한 곳은 인가하나 없는 황량한 반사막 초원지대인 우수토베란 곳으로, 소련당국은 이 황무지에 수십만의 한인들을 내려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생활을 하도록 강요했다. 2차 세계대전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한인들이 적성민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후방의 노동전선(탄광, 군수공장, 북극권 산림벌채 등)에 동원되어 추위, 기아, 강제 사역으로 고통 받았던 것이다. 현재 고려인은 11만 명 정도가 있으며, 교민도 10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 수도 : 아스타나(Astana)

\* 1998년 12월에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

◇ 인구 : 약 16,731,303(2001년 7월 기준)

◇ 면적 : 2,724,900km<sup>2</sup> (면적상 세계9위, 남한의 27배)

◇ 주요도시 : 알마티(130만), 카라간다(61.5만) (침첸트 40만)

\* 본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 KsNU/Kazakhstan

- ◆ 주요민족 : 카자흐인 51%, 러시아인 32%, 우크라이나인 4%, 독일인 3%
- ◆ 주요언어 : 카자흐어 40%, 러시아어 66%(공식 언어로 널리 사용됨)
- ◆ 종교 : 회교(수니파), 러시아정교

## 2. 알마티(사과의 도시)와 그 주변

알마티의 인구 130만 명의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자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직전 수도였다. 알마티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국가 민족 도시로서 카자흐인이 51%, 러시아인이 37%, 기타 국적이 12%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알마티의 사람들은 카자흐어나 러시아로서 의사소통을 하며, 때로는 토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외부세계로의 갑작스런 노출로 인해 알마티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쇼핑점,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서 1990년 이전에 이곳을 본 사람들은 그 변화에 놀라고 있을 정도이다. 알마티는 1997년 11월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로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수도는 바뀌었지만, 남쪽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국립박물관중 하나는 국립과학원 산하 고고학박물관(Archeological Museum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Kazakhstan)으로써 1973년에 건립되어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에서 중세말까지의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테마로 전시되어 있다. 안드로노보와 베가지-단디베보 문화가 깃든 가라쿤구르의 동굴을 전시하고 있어 독특한 관심을 끈다.

전시물의 일품은 "황금전사"이다. 이 동상은

금으로 장례복을 입힌 스키티안 전사로서, 이식(Issyk) 유적 군을 발굴하다 발견된 것이다. 4,000여개에 이르는 동물형상으로 장식된 황금조각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동물양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사박물관으로 과학대학 동물학 연구기구중 하나이다. 고생물학과 동물학 등 두 가지를 테마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고생물학부문은 초기 지질연대로 거슬러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동물유골화석과 나무화석이 전시되고 있다. 공룡의 원형화석, 거대한 코뿔소, 마스토돈, 매머드, 코끼리 등의 다양한 종의 장비와 고대 거대돼지, 거북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어, 주라기 공원을 연상케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조류, 포유류, 나비 류, 곤충, 파충류 등도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은 짧은 알마티 역사에 비해, 침공, 지진, 진흙사태, 폭동, 시민전쟁, 수도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등 수많은 도시의 아픈 역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 2) 젠코바 성당 (Zenkov Cathedral)

1903년 ~ 1906년 사이에 켄산 산 목재로 만들어져, 1907년 7월 30일에 그 모습을 일반인에 공개되었다. 높이 54미터의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목재 건축물이다. 젠코바 성당은 목조건물로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건축되었지만, 1911년 러시아의 제정시대에 도시 내의 2,000여개의 건물이 파괴되는 대지진에도 파괴되지 않고 견디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개 안되는 건축물 중 하나이다. 성당은 무게 중심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 무겁고도 낮게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 혁명 이후, 역사박물관, 문화센터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0년에야 성당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도시의 중앙 성당으로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찬의 안식처로써 운영되고 있다.

### 3) 대통령궁 (The President's Residence)

도시 중심에서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남쪽 궁으로 1980년에 만들어졌다. 건물 주변은 소련시절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광장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대조적으로 대통령궁은 14미터 높이로 서 있다. 건물 정면과 양쪽은 수직 반원기둥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궁의 양쪽에는 분수, 연못, 꽃등으로 꾸며진, 녹색광장이 있다.

### 4) 시민광장 (Republic Square)

1980년 이후, 알마티에서의 경제,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광장은 근대 건물이 들어선 가장 큰 도시 광장 중 하나이다. 1986년에 12월 폭동이 있었던 곳으로, 광장의 남쪽에는 대통령궁, 구 정부청사, 국영TV 건물이 있으며 광장 서쪽에는 5성 아카라 호텔이 자리 잡고 있고, 광장 북쪽으로 동양 양식의 착색유리로 이어진 두 개의 고층 주택건물이 서 있다. 건물사이로 나있는 바이세이토바 거리에는 광장과 알라타우산과 잘 어우러진 2개의 분수가 있다. 광장의 동쪽에는 알마티 국군병원과 중앙 박물관이 있다.

광장 중앙에는 건축가 쇼타 발리카노브가 만든 독립기념탑이 서 있는데, 대리석 기념탑의 꼭대기에 날개달린 표범과 삭 전사의 동상이 놓여 있다. 1986년 모스크바 통치에 대항한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 중앙에 세워졌다. 이 기념탑은 광장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 건축물이다.

### 5) 방송탑송신타워 (Television Tower)

도시에서 두드러지는 건축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TV 송신 타워이다. 콕투브 산언덕

에 지어진 TV 타워는 높이 327미터로 해발 1,000미터에 자리 잡고 있다. 5개의 TV 채널과 4개의 라디오 채널을 271KW로 인근 80km에서 190km까지 송신한다. 3개 층의 기초 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세워졌다. 114미터 높이에 원형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고, 타워 내에는 2개의 고속 엘리베이터가 운영된다. 강도 1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었다.

### 6) 메데오 (Medeo)

알마티에서 15km 떨어진 사진처럼 아름다운 계곡이다. 알마티의 젊은이들의 주말을 즐기는 곳으로도 인기 있는 곳이다. 소련시절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스 스케이팅링크가 있다. 해발 1,700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에서 2개뿐인 고지대 스케이팅 링크 중 하나로, 70년대 야외에 만들어졌으며 구소련의 자긍심이 스며있는 곳이다. 좀 더 올라가면 제방이 있는데, 진흙사태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이 제방은 그 기능 외에도 제방을 둘러싸고 있는 산맥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둘러싸인 산들이 지닌 환상적인 경관은 등산하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계곡정상(2,200미터)에는 여러 개의 리프트가 설치되어있는 스키리조트 '침블락'이 있다.

### 7) 침블락 스키리조트 (Chimbulak)

최고 수준의 리조트인 침블락 리조트는 100% 천연설로 만들어진 천연 스키장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스키산정리조트로 인정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보다 침블락에서의 스키와 관광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찾는 스키 애호가와 관광객들이 많다. 자연과 안

락하고도 안전한 휴식처로서 향상된 서비스와 뛰어난 기후를 만끽할 수 있다.

침블락에 오르기 위해서는 알마티에 물을 공급하는 댐에서 고산지에 있는 침블락 역까지 약 4 km를 올라가야 한다. 메테오까지는 버스가 운영되나, 이후부터 나있는 지그재그 모양의 길은 택시나 밴을 이용해야 한다. 자주 버스가 지연되고, 알마티에서 산 아래까지 1시간정도 소요되는데 비용이 50텡게(약 50센트)에 한나절 리프트 티켓이 약 20볼에 이르러 현지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비용이므로 버스를 이용하는 층은 주로 젊은 사람들로 스키를 타기위해 침블락을 찾기 보다는 피크닉이나 하이킹을 위해 오거나 메테오 야외 스케이트 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러 오는 경우가 많다.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고급 4륜 자동차나 밴츠를 타고 침블락 리조트까지 오르는데, 이때는 브레즈네프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댐을 지나 올라야 한다. 댐을 지나 산 중턱에 올라서면 좁은 계곡에서의 집중홍수를 예방코자 거대한 구멍을 볼 수 있다. 침블락에 이르면 위낙에 고산지대라 겨울 안개는 리조트 아래로 형성되어, 밝은 햇살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침블락에는 스키어를 위한 호텔과 1,500미터의 케이블이 불쇼이 탈가 스키장(해발 3,000미터에서 시작된 길이 3,200미터 활강코스)까지 이어져 있다. 침블락 스키 리조트는 원래 일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운동선수를 위해 만들어 졌다. 최근 리조트가 개인소유로 넘어가면서 편의시설 확충과 개보수로 일반인들이 많이 찾게 되었다. 리프트가 2인승 3개가 추가 건축되면서 스키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발 3,000미터까지의 리프트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1인승이다.

- 코스: 8개의 활강코스

- 식당: 3개
- 뺨: 1개
- 정상높이: 3,163 미터
- 탑 리프트: 3,163 미터
- 스키가능지역: 99 에이크
- 수직 높이: 943 미터
- 주변 공항: 알마티 국제 공항
- 리프트: 5개(체어 리프트 2개, 서페이스 리프트 3개)

### 8) 콕투베 산 (Koktyube)

콕투베 산은 해발 1,070미터로 자이리이스키 알타우 산맥의 마지막을 형성하고 있는 녹음과 수풀로 뒤덮인 언덕지역으로, 도시의 남동쪽 끝에 다 달아 있다.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어, 알마티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다. 특히 무수한 불빛이 수놓는 도시 야경을 보는데 이곳보다 좋은 데는 없다. 언덕은 전망대를 제외하고 보존되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고산식물이 자연그대로 자라고 있다.

### 9) 투르겐 계곡 (Turgen Gorge)

알마티에서 90km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일레-아우토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투르겐 계곡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계곡주변에는 연어농장과 폭포, 무성한 수풀이 우거진 수풀 림이 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암석과 숲 사이에서 30미터 아래로 쏟아진다. 투르겐 계곡은 7개의 폭포로 유명하다. 계곡의 절벽은 지진의 피해를 입었지만, 빙하시대 이전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환경의 변화로 한정된 지역에 살아남은 친-투르겐 이끼 종이 이루는 숲은 이곳의 또 다른 구경꺼리로, 땅과 나무를 두툼한 카펫처럼 뒤덮고 있다. 투르겐 계곡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보

탄이다. 보탄은 사냥이 허용된 지역이다.

### 10) 탐갈리 암면각화(Tamgaly petroglyph)

탐갈리 암면각화는 기원전 4,000년의 생활상이 남겨진 바위에 새겨진 암면조각화이다. 암반에 그려진 암면각화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카자흐스탄의 자랑이다.

알마티에서 170km 떨어진 곳에 있는 탐갈리 암면 상들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적지로 등록하여 보존되고 있다. 탐갈리 암면각화들은 신전과 함께 1950년대 말에 안라카이(Anrakhai)산에서 발견되어, 70, 80년대에 비로소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됨으로써, 탐갈리의 고대 흔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코크수(Koksu)의 에스키올메스 신전은 1980년대에 발견되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암면각화가 세미레치(Semirechie)지역에서 발견되어, 지금까지 발굴되어 보존되고 있는 암면각화는 50여 군데에 이르게 되었다.

4,000년 전 청동기시대에 사카족의 조상이 새겨 놓은 것으로, 동물과 사람, 사슴, 낙타, 사냥꾼, 천막집 등의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바위에 그렸다. 또한 그곳에는 사카족의 조상인 스키타이인의 고분이 남아 있다. 탐갈리는 수세기동안 종교적 의식 처로 이용되었다. 대부분의 각화는 사슴과 사냥의 모습을 새겨 놓았다. 또한 8세기로 추정되는 부처의 모습도 새겨져 있다. 그림의 일부는 중세시대에 새로 그려졌으며, 11세기까지 이곳은 의식을 행해졌다. 탐갈리 암면각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코크수강 계곡의 소라크, 킨디크타스, 안라카이, 바얀 주렉으로 이곳에는 수천 개의 암면 그림이 보존되어 있다. 이외에도 협곡 암벽, 언덕, 돌무덤에는 수백 개 이상의 암면그림이 새겨져 있다.

### 11) 차린 협곡 (Charyn Canyon)

알마티로부터 193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차린 협곡은 그랜드캐년의 축소판을 연상케 한다. 차린 협곡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계곡으로, 차린 강(티엔산 북부에서 가장 깊은 강)을 따라,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154km 뻗어 있다. 계곡은 3,000여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곡의 깊이는 150 ~ 300미터에 이르고, 날씨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모습은 바람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사암 형상이 계곡을 성곽으로 조각해 놓은 듯 둘러싸여 있다.

돌리나 잠코브에 차린 협곡의 암벽은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원형이 돌계단형태로 남아 있다. 계곡의 바닥부분과 돌리나 잠코브의 낮은 부분의 검은 바위는 화산암석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암석의 연령이 짧아진다. 돌리나 잠코브 암벽의 붉은 절벽들은 흘러온 잔해가 침전되어 생긴 사력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차린 협곡의 평지는 강물에 밀려온 회색 사력층으로 뒤덮여 있으며, 풍화작용은 자갈을 고운 돌가루먼지로 잘게 부수었다. 차린 협곡의 바닥은 차린 강의 옛 모습을 고스라니 보여주고 있다.

차린 협곡의 고지대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군을 형성하여 자라고 있다. 80km의 계곡은 래프팅, 하이킹의 최적의 장소로 알마티와 중국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차린 협곡의 높은 지역의 래프팅은 매우 험난하여 전문장비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동행해야 한다. 손쉽게 돌리나 잠코브 주변의 트래킹과 하이킹을 즐길 수 있고, 다른 길을 가려면 전문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알마티에서 하루 관광이 가능하다. 돌리나 잠코브에서 야영은 금지되어 있다.

## 12) 이시크-쿨 호수 (Issyk Lake)

이시크-쿨 호수는 알마티에서 천산(텐산-Tianshan) 줄기를 넘어 키리기즈스탄 영내에 있는 세계 두 번째로 큰 산정호수로서, "뜨거운 호수"라는 뜻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 호수이자, 남미의 티티카카 호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있는 호수이다. 호수는 대류현상과 강한 바람, 깊은 수심이 호수전체를 독특한 기후를 형성하여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해발 1,600미터에 자리 잡은 이시크-쿨 호수는 길이 180km, 폭 70km, 수심 700미터로 흐르지 않는 호수로 약간 짠맛을 낸다. 바다보다 5배 정도 약한 소금기는 호수를 청정하게 유지하게 하고, 수영하기에도 적합하다.

"중앙아시아의 보배"로 일컫는 이시크-쿨 호수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약한 녹색에서 푸른색까지 하루에도 여러 가지 빛깔을 내며, 흰 눈으로 뒤덮인 산을 비춘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시크-쿨 호수 변에 만들어진 자연 모래사장을 많이 찾고 있다. 대부분의 리조트와 호텔은 호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알마티와 이시크-쿨 호수사이가 트레킹 지역으로 가장 유명하다. 호수의 남동쪽으로 수많은 계곡이 있어 트레킹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13) 공항교통

밤 10시 이후에는 버스, 트램, 트롤리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콜택시를 부를 때는 전화번호 058번이나 007번으로 걸어 요청하면, 개인택시(라이센스가 없는 개인소유의 택시)를 보내준다. 타기 전에 미리 요금을 결정하고 타는 것이 좋으며, 합승은 거의 하지 않는다.(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현지인을 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다소 비싸더라도 전용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공항에서 시내까지 10~20달러 정도로 현지 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택시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택시는 공항에서도 골치를 앓은 사기꾼들이 많다.

알마티 공항은 도시중심에서 15km떨어진 곳에 있다. 낮에 도착하여 택시를 아끼는 방법은 492번 버스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도시 메인 거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 알마티의 교통은 현지인들의 거친 행동들을 보기도 한다. 공공교통시설은 시 관리가 아니라,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개인소유이다.(개인소유의 버스는 4,5로 시작하는 3자리숫자의 번호로 운임은 25~30텡게 정도한다.) 그러나, 공항과 도시간의 버스이용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버스이외에도 트램이나 트롤리버스가 밤 10시까지 운행되고, 이후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트램, 트롤리버스,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등의 운임은 약 20텡게 정도이다. 트롤리버스와 트램의 경우 하루에 8번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한 달자리 버스 이용권이 900텡게 정도 하므로, 여행계획에 맞춰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텔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공항까지의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급 호텔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14) 지역전통요리 샤슬릭 (shashlik)

러시아의 동부지역 전통음식으로, 숯불로 구운 일종의 바베큐이다. 샤슬릭의 본고장은 이란, 이라크, 레바논, 카프카스 산맥 일대이다. 단순히 고기를 꼬챙이에 꽂아 불에 구운 것이 아니라, 샤슬릭의 전체 요리과정은 전통 관례와 금제를 지닌 의식의 의미를 지닌다.

카프카스 식 전통요리법은 양고기에 신선한 토마토, 같은 야채, 양파, 치즈, 와인 등의 재료

를 이용하여 요리한다. 최근에는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주문할 때, 육류와 생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육류에는 얼리지 않는 신선한 고기로,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철갑상어, 닭, 오리, 거위 등까지 요리 재료로 하고 있다.

▶ 양고기 샤슬릭 - 전통요리법에 의해 요리되어진다. 양은 살찌지 않은 8kg 이하의 어린 양고기를 이용한다. 작은 조각으로 같은 크기로 고기를 잘라, 그 고기를 양파를 갈아 만든 즙에 담근다. 맛을 내기 위해 소금과 후추도 넣는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파프리카와 다른 양념에 버무려 하루정도 매리네이드에 담근다. 신선한 고기의 맛을 죽이는 식초와 와인은 요리에 사용되지 않는다. 4 ~ 5개의 고기 덩어리와 야채를 사이사이에 넣어 꼬챙이에 끼워 핑크빛의 윤택이 날 때까지 불에 쪄어 굽는다.

### 3. 교류활동

한국·카자흐스탄과의 국제학술활동 : 시베리아 하단을 따라 눈 덮인 대륙을 건너서 쉐산(천산) 넘어 800m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과의 도시 알마티에 첫 발을 내디뎠다. 90년대 중반의 당시에는 임대전세기 형태로 왕래하던 카자크항공사 항공기는 군용기를 개조하여 운영하던 화물기는 앞쪽 일부에 좌석을 열고 여객을 탑승시켜 운행하고 있었다.

어렵게 구입한 항공권에는 좌석 배정번호가 있었지만, 기내에 들어서자 좌석배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 나의 좌석에는 어느 여인이 자리를 잡고 누워있으면서 좌석번호를 보여주며 비켜주기를 요구하는 나에게 네가 누구냐는 듯이 바라보면서 헛웃음만 치고 누워서 나를 무척하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처

음엔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었으나, 얼마 후 이를 알아채고 나서 거칠게 항의를 하였더니 어느 중년 남성이 다른 빈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보니, 좌석번호에 관계없이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얼떨떨한 기내질서에 어리둥절하며 여기서 10시간에 가까운 시베리아대륙횡단 비행시간을 견디며 지낼 일과 낯선 현지에 도착하여 말도 통하지 않는 현지생활에 일시적이거나 눈치로 적응해야 할 일들이 심히 걱정이 되었다. 그뿐인가, 비행기에 탑승을 한 뒤 출발시간이 지났는데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9시 출발이기 때문에 기내 식사를 할 셈으로 새벽에 식사도 거르고 서둘러 가서 탑승을 하였는데, 출발시간이 경과하고 1시간, 2시간이 지나 정오가 넘었는데도 식사제공은커녕 무어라 안내방송조차도 한마디가 없었던 일들에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화가 덜컥 날 지경이다. 문이 닫힌 비행기 내에서 외부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겁이 나기 시작하였다.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가 하고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더욱 현지에 마중 나와 나를 안내하기로 한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꼬리를 물고 걱정스러웠다. 마치 지옥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마 3시가 지나서야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시베리아대륙을 횡단하고 있지만 즐겁기보다는 모든 일이 걱정스러워 잠도 들지 않았다. 한참 지난 뒤에 기내 식사가 나왔지만, 딱딱하여 잘 씹히지도 않는 빵과 불결하게 느껴지는 야채 몇 점이 전부였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곱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기내 서비스라는 말을 하기에 도 어울리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여곡절 속에 도착을 하였으나, 나는 현지비자를 받아도 된다는 현지 파트

너의 말에 비자도 없이 출발하였으나 그 당시 카자흐스탄과의 외교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서 비자발급을 받을 곳도 없었던 일이 생각난다.

몹시 느린 권위적 입국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몹시 불쾌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눈치로 살피면서 차례를 만나 군복차림의 근무자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고 기다렸다. 뭐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자수수료를 달라는 말로 알고 \$50을 내주었더니 한참 만에 여권을 주면서 가라는 표정을 하였다. 가을이었지만 추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땀이 줄줄 흘러내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가면서 통관을 위해 낫 모르는 신청서를 써야했고, 복잡한 가방검색을 거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도착예정 시간으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도 없었다.

파트너가 기다릴 것이라고는 거의 포기한 채 무거운 가방을 끌고 힘없이 나가면서 보니 조그만 종이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보였다. 깜짝 반가워 그 앞으로 다가가보니, 기다리다 지친 탓인지 Sergey Pak 선생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다. 어쨌든, 반가이 만나서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 숙소로 향하면서 나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파란과 역경이 어우러진 카자흐스탄과의 학술교류의 시작이었다. 그때 파트너였던 박세르게이 선생은 그해 7월 요녕성민족과학자협회에서 주최하여 중국단둥에서 개최된 민족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 나는 이 학술대회에 협회 명예이사 자격과 학술/조직위원 자격으로 한국참가자(신용진교수를 비롯한 교수, 장태희 국장 및 대학원생 등)를 인솔하고 참가하였고, 이때 협회의 권유로 협찬금 100만원을 기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의 협력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폐회식에서 중국식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1996년 10월 박운학 (Sergey Pak) 선생 초청을 위한 첫 알마티 방문

1997년 10월 국제학술대회 참가 방문-박운학 동행

1998년 3월 과학재단 지원 해외과학자 초청활동 연구방문(2주간)

1998년 6월 ICAST'98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으로 1주일 전 사전입국 준비작업 수행 및 카자흐스탄 대표 Korobova N. 초청입국 대회참가

1998년 8-9월 STEPI 지원 CPI 연구방문, 알-파라비 카자크국립종합대학(KsNU) 방문/Mansurov 부총장 회합, 비슷한 연배와 원사동문으로 친구(학술동료)가 됨

1999년 10월 OSOS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Korobova 초청확인 차 방문(공동목적겸행)

2000년 2월 25일 Korobova 연구과학자 초청입국

2000년 4월 말 Korobova 현지출장 수행

2000년 5월 Tashkent 국제학술대회 참가

2000년 6월 과학자교류사업 현지 Lab. 및 과학자 유치 신청서 작성, 신청-유치확정

2000년 6월 국제공동연구 과제제안서 작성, 신청-국제공동연구과제 확정

2000년 6월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과제제안서 작성, 신청-탈락

2000년 10월 OSOS 및 Mansurov 국제학술대회 초청방문-비행기결항으로 포기

2000년 12월 24일 Korobova 연구종료 귀국(다수의 연구 성과 논문발표, 인터뷰신문기사-세계일보, KBS 라디오해외방송대담출연)

2001년 2월 13일-19일 CPI 연구협의 방문

2001년 2월 20일 Korobova 2년차 연구과학자 입국

2001년 6월 CIS고려인과학자협회 창설10주년 기념 모스크바 세계한인동포국제학술대회 - 수



술 후 건강관리상 불참

2001년 6월 과학자유치사업, 현지 Lab. 유치사업 제안서 작성, 신청-불확정

2001년 6월 국제공동연구 결과보고서 및 연차계획서 작성, 신청-확정적

2001년 6월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과제제안서 작성, 신청-탈락

2001년 8월 24일-9월2일 Korobova 모스크바 휴가(공무출장 처리)

2001년 9월 24-26일 카자흐스탄 과학교육부 국제학술대회 OSOS 초청-방문 미정

2001년 10월 9-11일 Mansurov 국제학술대회 초청-방문 미정

2002년 2월 Korobova 2년차 연구종료 귀국예정

그 후 각종 국내외학술대회, 행사 참가/휴양지/관광지 등의 관람을 수반하여 교류하였다. 최근 사항으로, 2006년 5월 Zulkhair A. Mansurov 교수의 갑작스런 한국방문으로 재회하였으며 이때 그의 아내인 Raushan Mazumobna Mansuroba 교수의 타계소식을 들었으며, 6월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회갑기념논문집 발간계획을 소개하며 참가해줄 것을 초청하였으나 업무관계로 참석치 못하자 11월 3일 UNESP 국제환경학술회의의 참석차 입국하는 CPI 연구소장 Sestager AKNAGOROV 교수(Director of CPI)에게 자서전/회갑논문집을 보내오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나타냈다.

#### 4. 맺음말

1990년부터 공동저자(한국/소대화)는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 중주 국가였던 구소련연방국가와 중국과의 학술교류활동이 시작되었다. 1994년

중국과의 학술교류협력 활동에 이어 1996년 한국 측에서 필자의 한국·카자흐스탄 국제협력교류활동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난 2000년 11월에는 IASNS 국제기구로부터 UNITY PRIZE GOLD MEDAL을 수여 받았고, 이들의 성과들을 인정받아 2004년도에는 과학기술유훈국가훈장(진보장)을 서훈 받는 결실을 거두었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저자 간에 한국동굴학회와의 대외교류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중앙아시아지역 동굴과학정보망 구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교류협력의 선두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찬동하며 앞으로 국제협력 교류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굴탐사와 기행기록 작성, 상호학술정보교환 등의 작은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여 향후 큰 매듭을 짓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부록: 학술교류 실증

[현지에서 보내 온 카자크 동굴정보]

Dear Prof. Soh,

We have received information about caves in Kazakhstan. The caves are arranged on the all territory of Kazakhstan. There are around 150 caves. Nearest caves from Alma-Ati are located at the Barlkhask lake and it is around 500 km than, there are Semipalatinsk (1200 km) and Ustkamenogorsk (1600 km). The caves have different sizes: length can be up to 70 m, width up to 20, height up to 24 m, depth up to 120 m. Some

caves have small lake internal of them. You can visit some caves using train or fly. The price of round tickets is around 300 \$. Rent of car is 100\$ for day. Also Ivan Timofeevich wrote that he could find guide if it is necessary. Also he ask to sent your passport dates as soon as possible.

Valeri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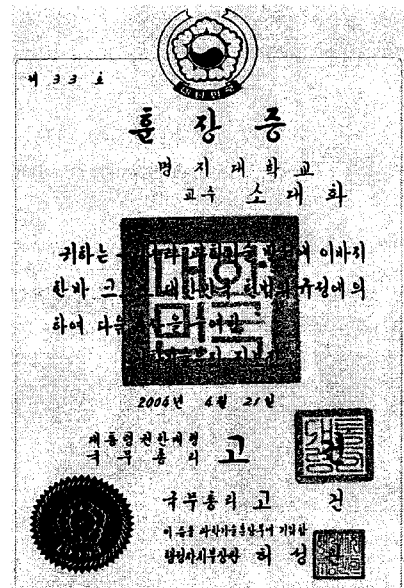
과학원사 나우리즈바예프와 그의 연구원들과의 학술교류



사진-상) 천산중턱의 주말별장 "다차"에서 초대해 준 현지인들과 천산수목풍광



사진-하) 좌측 인물이 카자크중합국립대 물리학부 주임교수 Sarshembinov 박사(구소련 당시 서기장의 사위)



명대신문에 게재된 국민훈장 과학기술유공훈장 진보장 서훈 관련 기사(상)와 양국 학술교류성과를 크게 인정받아 이를 계기로 서훈 받은 국민훈장증서(하)



2006년 5월 Zulkhair A. Mansurov 교수의 한국방문 재회-롯데호텔 이태리식 레스토랑에서, 이때 그의 아내인 Raushan M. Mansuroba 교수의 타계 소식을 들었으며, 6월 국제학술회의 겸 회갑기념논문집 발간계획 소개와 함께 초청제안을 받았으나 학기 중 업무관계로 불참. 11월 3일 UNESAP 국제환경학술회의에 참석하는 Director of CPI, Sestager Aknagorov 교수에게 회갑자서전/논문집을 보내오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였다.